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주세요”

연예인 초청 골프대회 통해 마련된 성금 1187만8000원 정읍시에 전달

정읍시 불우이웃돕기 연예인 초청 골프대회를 통해 마련된 성금 전달식이 지난 20일 열렸다. (주)대일내장산내장산컨트리클럽 김호석 회장과 김은정 대표, 정읍시골프협회 허용 회장과 김성천 사무국장은 시상실을 방문해 성금을 유진섭 시장에게 전달했다.

앞서 골프대회는 지난 12일 내장산 골프리조트에서 진행됐다. 골프대회는 스타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이웃을 돌아보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골프대회를 통해 마련된 총 모금액은 1187만8000원이다. (주)대일내장산컨트리클럽(회장 김호석)이 800만원, 정읍시골프협회(회장 허용)가 150만원, 일반초청 참가자가 237만8000원을 내었다.

김호석 회장은 “불우이웃을 돕는 좋은 일에 많은 연예인분과 시민께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이웃사랑의 나눔 문화가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용 회장은 “유명한 연예인들과 함께 골프를 즐기고 기쁨도 마련하는 뜻깊은 대회에 참가하게 되어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대회가 지속적으로 추진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유 시장은 “대회를 통해 마련된 성금은 도움 주신 분들의 마음을 담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잘 쓰도록 하겠다”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시 불우이웃돕기 연예인 초청 골프대회를 통해 마련된 성금 전달식이 지난 20일 열렸다. (주)대일내장산내장산컨트리클럽 김호석 회장과 김은정 대표, 정읍시골프협회 허용 회장과 김성천 사무국장은 시상실을 방문해 성금을 유진섭 시장에게 전달했다.

이와 관련 (주)대일내장산컨트리클럽이 주관한 골프대회에는 인기 배우 최재성과 안재모, 이종원, 김유석, 이경진, 배도훈 등 국내 유명 연예인 20명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정읍시 골프협회 회원 등 일반인 60명도 참가했다.

한편 대회가 열린 내장산 골프리조트는 91만3천884㎡ 부지에 18홀의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골프필 2동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접근성이 뛰어나 전국

의 골퍼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활성화는 물론 세계적 체류형 관광도시 기반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다. 또 최근 KBS 방송 제작진 정읍 두루두루 둘러보기 코스와 CJ 헬로 볼매트코 정읍시장점 제작 코스, KBS 도돌 김용욱 선생 ‘녹두꽃에 피어난 촛불’ 출연진 명품 방문 코스 등으로 소개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도마음사랑병원, 정신건강세미나 성료

전북도마음사랑병원(이사장 김성익)은 지난 21일 문화센터에서 200여 명의 정신건강 유관기관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현병에 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제2회 마음사랑 정신건강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여 조현병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파악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조현병은 공격성에 더 취약한가? (강남인 -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현병을 둘러싼 사회적 이슈 : 커뮤니티케어는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전준희 -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약물의 치료 Modality ; ECT(전기자극치료), TMS(경두개자극치료) 소개 (오규환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나 돌아갈래, 다시 사회로 (김미경 정신재활시설 아름다운세상 원장)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실무자들은 “조현병에 대한 나의 생각이 편견이 있음을 깨닫는 기회였다”, “병원에서의 치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접근방법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강연을 평가했다.

김성익 이사장은 “21회까지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주제를 선정해 유용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익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

익산소방서(서장 백성기)는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섰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북 구급대원의 폭행건수가 14년부터 18년도까지 총 21건이 발생 하였으며 가해자(이송환자)의 88%가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폭행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익산소방서에서는 예방활동 강화(폭행근절 홍보), 현장대응 강화, 위험 상황 인지 시 구급대원과 소방원들이 함께 출동, 구급대원에게 출동 중 보호장비(헬멧) 및 영상장비 등 보급을 통해 폭행에 대비하고 있다. 행정적으로는 폭행사고 운영전담팀을 구성하여 폭행 발생 즉시 직원을 보호하고, 소방 특사경 수사를 통해 관련 법령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익산=정인천 기자

남원소방서, 학교로 찾아가는 119안전체험교실

남원소방서는 지난 20일 사매면에 위치한 용복중에서 2019년 학교로 찾아가는 119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체험교실은 안전체험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어촌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체험 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체험행사로, 이동안전체험차량 내 안전체험 장비를 활용해 연기 소화기를 활용한 가상화재 진압체험, 지진 및 농연체험, 12미터 경사구조대 및 에어매트를 이용한 탈출체험, 심폐소생술 교육, 구조장비 조작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힐링 체험공간에 ‘예술’ 덧입히다

순창건강장수연구소, 교육생 대상 ‘김주연 수채화전’ 전시

순창건강장수연구소가 최근 교육생과 탐방객들의 불거리와 정서함양을 위해 ‘김주연 수채화전’을 열었다.

연구소내 강당로비, 숙박동, 식당 등에 전시하여 교육생들에게 색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교육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것은 물론 순창의 수준 높은 귀촌예술인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로도 삼고 있다.

특히 순창건강장수연구소는 힐링을 테마로 사기업 연수 공간 등 전국에서 각계각층의 방문객이 모여드는 순창을 대표하는 힐링 체험공간으로, 이번 전시로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힐링을 선사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일부터 순창군립도서관에서 열린 전시회가 끝나고 38번째 전시회를 특별한 장소에서 열기를 위한 김 화가의 결정으로 이번 전시회가 성사됐다.

김 화가는 순창에 귀촌한 예술인으로, 이번 전시회를 비롯해 지역사회 크고 작은 전시회를 무료로 개최

하며, 화가 자신의 재능을 살리는 동시에 순창의 문화예술 부흥에도 일조하고 있다.

현재 순창 풍산에 정착한 김 화가는 국제교류전, 초대작가전 등에 수차례 참여한 대표 수채화가로, 대한민국의화대상전 대상 및 평화예술제 국회의장상, 세계여성 미술대전 최우수상 등 화려한 수상이력을 자랑한다.

특히 아름다운 감성과 시선으로 심상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물감의 농도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번짐기법을 구사하는 화가로도 유명하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은 전북지역의 서정을 느낄 수 있는 ‘겨울이야기’와 봄을 기다리며 소망을 담은 ‘꽃’이라는 작품으로 구성됐다.

이외에 김 작가는 순창건강장수연구소 노후준비과 정인 제3기 인성대학에서 강사로도 활약하며 미술 치료로 교육생들에게 자신감을 회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생 각자의 인성 설계를 위한 조언자



역할도 아끼지 않고 있다. 교육생인 부산의 변재인(69)씨는 “김 화가의 설명을 들으며 직접 그림을 그려보니 더욱 의미 있는 교육이 됐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노후설계 및 바른식생활교육의 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을 덧입혀 순창이 치유와 힐링의 적지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원희 기자

익산시 문화도시사업단, ‘왕도정원 가꾸기’ 나서

익산시의 익산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사업단이 시민들과 함께 아름다운 골목정원 조성에 나섰다.

대상지는 원광정보예술고와 모현동 옥정마을 사이 골목길로 이곳은 오래전부터 우범지역으로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민원이 잦았던 곳이다.

이에 따라 문화도시사업단 ‘왕도정원 가꾸기 사업’과 익산경찰서 ‘별도예방환경개선사업’이 만나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하고 건강한 골목길 조성을 시작했다.

골목정원은 지난달 27일 익산희망연대의 ‘봄으로 만드는 세상’, 원광대학교 미술동아리인 ‘윌플라워’, 문화도시사업단 ‘어라하꽃단’ 등 시민 자원봉사자들의 벽화작업으로 시작했다.

이어 지난 16일과 17일에는 모현동주민자치위원회, 옥정마을 주민, 익산경찰서, 모현 - 송학자율방범대, 원광대학교 조경학과,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플랜트 박스에 식물 심기 작업을 함께하고 이를 골목길과 담장 곳곳에 배치해 골목정원을 완성했다.

이번 작업은 지역의 도시경관에 대한 문제점을 시민들의 손으로 해결하고 조성해나가는 ‘왕도정원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지난 2018년 남부시장의 미니정원 조성에 이은 두 번째 작품이다.



전은, 도내 사회복지사 복지향상 위한 장례용품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전북은행 본점에서 전북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배인재)에 도내 사회복지사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장례용품 전달식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달식은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과 송고한 봉사정신으로 사회 곳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도내 사회복지사의 복지향상과 처우개선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은행 김중원 부행장, 정동필 따뜻한금융클러닉전주센터장, 김경진 사회공헌부장, 전북사회복지사협회 배인재 회장, 전북사회복지사협회 각 지역 지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오는 24일 전북은행 본점 앞에서 옥스팜X샘김 푸드트럭’과 전북은행과 함께하는 ‘옥스팜X샘김의 푸드트럭’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전북은행과 함께하는 ‘옥스팜X샘김의 푸드트럭’ 행사는 전 세계 식량불균형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지속되는 내전 및 자연재해로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24일 오전 전북은행 본점 앞에서 진행되며, 푸드트럭 방문자에게는 다양한 방송활동을 펼치고 있는 셰프 샘김이 직접 요리한 파스타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임실경찰, 어린이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임실경찰서(서장 박주현)는 21일 관촌초등학교에서 이른 아침 어린이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으로 박주현 서장을 비롯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관촌초 교직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졌는데 등교하는 학생을 상대로 안전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을 홍보하며 시인성이 좋은 무지개 우산을 선물로 배부하고, 학교 앞을 운행하는 일반차량 운전자들을 대상으로는 스쿨존 내 과속, 주·정차 금지와 어린이 안전띠 및 영·유아 카시트 착용을 홍보했다.

박주현 서장은 “스쿨존 내 법규 준수와 고취 및 어린이가 안전한 도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실=전홍명 기자

